



[hananimuibep.org](http://hananimuibep.org)

## 부록 7b: 이혼 증서 — 진실과 신화

이 페이지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혼인에 관한 연재의 일부이며, 다음 순서를 따릅니다:

1. [부록 7a: 처녀들, 과부들, 그리고 이혼한 여성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혼인](#)
2. [부록 7b: 이혼 증서 — 진실과 신화](#) (현재 페이지).
3. [부록 7c: 마가복음 10:11-12와 간음에서의 잘못된 평등](#)
4. [부록 7d: 질문과 답변 — 처녀들, 과부들, 그리고 이혼한 여성들](#)

성경에 언급되는 “이혼 증서”는 혼인을 해소하고 새 연합을 허용하는 신적 승인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신명기 24:1-4의 [סֵפֶר כְּרִיתוֹת (sefer keritut)]과 마태복음 5:31의 [βιβλίον ἀποστασίου (biblión apostasíou)]의 참된 의미를 밝히며, “내보낸 여자가 다시 결혼할 수 있다”는 거짓 가르침을 반박합니다. 성경에 근거하여, 이 관행은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용인했을 뿐 결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음을 보입니다. 이 분석은 하나님 보시기에 혼인이란 남편의 죽음까지 여자를 남편에게 결속시키는 영적 연합이며, “이혼 증서”가 이 결속을 해소하지 못하므로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 여자는 여전히 그에게 매여 있음을 강조합니다.

**질문:** 성경에 언급된 ‘이혼 증서’란 무엇인가요?

**답변:** 대부분의 유대 및 기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것과 달리, 그러한 “이혼 증서”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신 지시는 없습니다 — 하물며 그 증서를 받은 여자가 새 혼인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은 더더욱 아닙니다.

모세는 신명기 24:1-4에서 “이혼 증서”를 단지 한 예시의 일부로만 언급합니다. 그 목적은 본문에 담긴 실제 명령으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곧, 여자가 다른 남자와 동침했을 경우 첫 남편이 그 전 아내와 다시 눕는 것을 금하는 것(예레미야 3:1 참조)입니다. 덧붙여 말하면, 첫 남편이 그녀를 다시 집으로 데려올 수는 있었지만 — 다만 더 이상 관계를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압살롬에게 욕을 당한 후 다윗이 후궁들을 다시 거두되 더 이상 그들과 동침하지 않았던 사례가 그 예입니다(사무엘하 20:3).

모세가 단지 상황을 ‘예시’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주된 증거는 본문에 접속사 **כי(ki, “만일”)**가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만일 그 여자에게서 어떤 부정함[**הרהר, ervah, “벌거벗음/수치”**]을 발견하면... 만일 두 번째 남편이 죽으면... 모세는 수사적 장치로 가능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이혼을 금지하지는 않았다고 분명히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구절이 공식적인 ‘허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모세가 이혼을 허용한다고 말하는 구절은 한 곳도 없습니다. 모세는 막 400년 노예 생활에서 나온 백성의 완악함을 보시고, 그들이 여인들에게 행하던 일을 수동적으로 묵인했을 뿐입니다.

신명기 24장에 대한 이 잘못된 이해는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랍비 힐렐**과 그의 추종자들은 이 본문에서 본문에 없는 것을 끌어냈습니다. 곧 남자가 아무 이유로든 아내를 내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벌거벗음” **הרהר**가 “아무 이유로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이 오류들을 바로잡으셨습니다:

1. **πορνεία(porneía)** — 어떤 부정한 것)만이 유일하게 용인될 수 있는 이유임을 강조하셨습니다.
2. 모세가 이스라엘 남자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들이 여인들에게 하던 일을 단지 묵인했을 뿐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3. 산상수훈에서 “이혼 증서”를 언급하신 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결론지으시며, 이 법적 문서를 영혼의 분리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마태복음 5:31-32).

참고: 그리스어 **πορνεία(porneía)**는 히브리어 **הרהר(ervah)**에 해당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벌거벗음/수치”를 뜻했고, 그리스어에서는 “어떤 부정한 것”으로 의미가 확장되었습니다. **Porneía**는 간음[**μοιχεία(moicheía)**]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성경 시대에 간음의 형벌은 사형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32에서 예수님은 두 단어를 같은 문장 안에 사용해서 서로 다른 개념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혼에 관해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가르치라고 명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신실하여 하나님께 들은 것만 말했기 때문입니다.

**sefer keritut**이라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 “단절의 책/이혼 증서”를 뜻하며, 토라 전체에서 단 한 번 — 바로 신명기 24:1-4에만 —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 모세는 남자들이 아내를 내치기 위해 이 증서를 사용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이는 그것이 이미 존재하던 관행이었고, 이집트 포로 생활에서 물려받은 것임을 시사합니다. 모세는 이미 행해지던 것을 단지 언급했을 뿐,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지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모세 자신도 약 마흔 해 전에 이집트에서 살았고, 이런 종류의 법적 문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토라 밖, 타나크에서도 **sefer keritut**은 오직 두 번만 사용되며 — 둘 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입니다(예레미야 3:8; 이사야 50:1).

이 두 상징적 용례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혼 증서”를 주셨다고 해서 그 나라가 다른 신들에게로 자유롭게 연합될 수 있다는 암시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영적 배교는 본문 전체에서 정죄됩니다. 다시 말해, 상징적으로조차 이 “이혼 증서”가 여자의 새 연합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역시 이 증서를 영혼들 사이의 분리를 합법화하도록 하나님이 승인하신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이 표현이 나오는 곳은 마태복음 두 곳 — 그리고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한 곳(마가복음 10:4)입니다.

**1. 마태복음 19:7-8:** 바리새인들이 이 증서를 언급하자, 예수님은 모세가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 사용을 허용했다(**epétrepson**)고만 답하셨습니다 — 곧 하나님 명령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2. 마태복음 5:31-32,**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지니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porneía**의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면 그녀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를 아내로 맞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른바 “이혼 증서”는 애초부터 신적 ‘허가증’이 아니었고, 다만 백성의 완악함을 보신 모세가 잠시 용인했던 것뿐입니다. 여자가 이 증서를 받았다고 해서 영적으로 해방되어 다른 남자와 연합할 수 있게 된다는 생각을 지지하는 성경 구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생각은 말씀에 근거가 없는 신화입니다. 예수님의 명확하고 직접적인 가르침이 이 진리를 확인합니다.